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차트로 보는 1 분기 글로벌 금융 시장
 - ◇ (초점)-3 월 韓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 무역적자 등 불안 요소도 드러나
 - ◇ (초점)-자산스왑 가뭄에 휘둘린 크로스 시장..'부채스왑의 봄' 앞두고 긴장감↑
 - ◇ (달러/원 월간 전망)-단기 상단 확인에도 수급 부담 확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러시아군이 물러난 뒤 마을 주민들이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토머스 피터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215.5	0.3%	-2.2%	-8.6%	유로	1.1055	0.7%	-2.8%	-6.9%
100엔 대비	995.7	0.8%	3.7%	+1.8%	엔	122.51	-0.4%	-6.0%	-10.3%
유로 대비	1,348.5	-0.2%	0.2%	-1.9%	위안	6.3620	0.1%	-0.1%	+2.7%
위안 대비	191.70	0.4%	-2.4%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4,818.27	-0.1%	-4.2%	+18.7%
코스피	2,739.85	0.4%	-8.0%	+3.6%	나스닥	14,261.50	0.7%	-8.8%	+21.4%
코스닥	940.57	0.6%	-9.0%	+6.8%	S&P500	4,545.86	0.1%	-4.6%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92.13	1.6%	-6.0%	-4.9%
국고채 3Y	2.784%	27.9bp	98.6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2.942%	22.9bp	93.1bp	+67.6bp	미국채 2Y	2.460%	18.0bp	173.0bp	+61.0bp
국고채 10Y	3.007%	13.6bp	75.7bp	+53.7bp	미국채 10Y	2.390%	-10.0bp	88.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9.42	-11.7%	31.8%	+55.8%	한국 5Y	28.9bp	-0.4bp	6.8bp	-0.7bp
금(현물)	1,925.30	-1.7%	5.3%	-3.6%	일본 5Y	18.8bp	-0.4bp	1.2bp	+2.1bp
TR상품지수	3,820.21	-1.2%	14.4%	+24.6%	중국 5Y	60.1bp	-1.4bp	18.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4일(월)>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5:00)

<5일(화)>

- 한은, 3월말 외환보유액(06:00)
-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기재부, 부총리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 기재부,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10:00)

<6일(수)>

- 금감원, 20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금감원, 2021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12:00)

<7일(목)>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KDI 경제동향(4월호)(12:00)
- 한은, 2021년 자금순환(잠정)(12:00)

<8일(금)>

- 특이 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4일(월)>

- 유로존 4월 섉틱스지수 (17:30)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2:00)
- 미국 2월 공장주문 · 내구재주문 수정치 (23:00)
- 미국 3월 고용추이 (23:00)
- 중국, 대만 휴장

<5일(화)>

- 일본 2월 가계지출 (08:30)
- RBA, 통화정책회의 (13:30)
- 미국 3월 공급관리협회(ISM) 서비스업 PMI (23:00)
- 중국, 홍콩, 대만 휴장

<6일(수)>

- 중국 3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10:45)
- 유로존 2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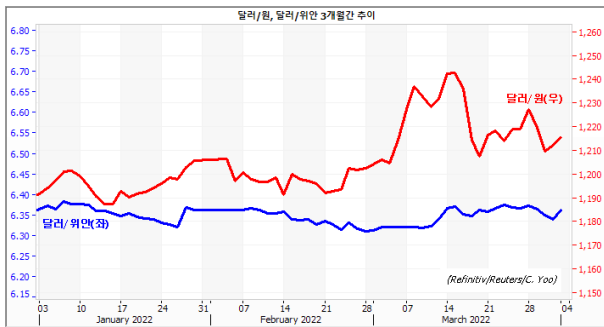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15-16일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03:00)
- 중국 3월 외환보유고
- 일본 2월 경기선행 · 동행지수 (14:00)
- 유로존 2월 소매판매 (18: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30)

<8일(금)>

- 일본 2월 경상수지 (08:50)
- RBA, 금융안정보고서 (10:30)
- 미국 2월 도매판매 · 도매재고 수정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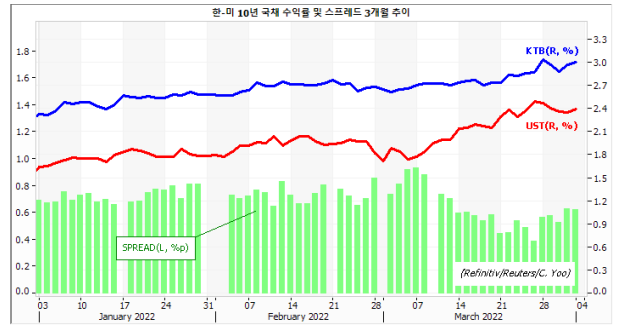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준 3월 회의록 내용과 외국인 주식 투자자 배당 역송금 수급 등에 주로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10-1235 원이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 건축 우려가 시장 심리를 짓누르고 있어 위험자산과 통화 앨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실물경제나 통화정책에 있어 미국 차별화 기대가 유지됨에 따라 달러 강세 전망도 유효하다.
- 2018년 말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난 3월 연준 정책회의 의사록이 이번 주 공개되는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한 연준 스탠스를 재차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힌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도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이 관건이다.
- 호주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열린다.
- 국내 주목할 지표로는 3월 소비자물가와 2월 국제수지(잠정) 등이다.
- 최근 여유롭지 않은 외환 수급에 대한 시장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2월 국제수지 결과는 주목된다. 2월 무역수지는 소폭 흑자였다.
- 이번 주부터 국내 주요 상장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원화는 이로 인한 수급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지급되는 외인 배당 몫은 약 5600 억원 수준이다.
- 달러/원 하방 경직성이 한층 두터워질지 주목되는 한 주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지난주 국내 금리가 급등했다.
- 지난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궤적을 지켜본 이들은 미국도 '이제 다 왔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태세 전환을 기대할 때마다 더 강한 매파 수사가 금리를 휘저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 오는 6일(현지 시각) 공개되는 미국 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 역시 다시 한번 미국 국채시장을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발 매파 수사가 나올 때마다 금리가 요동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손실을 회복할 때마다 포지션을 털어내려는 시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다만 지난 주말 국내 시장의 조정은 이번 주 초 국고채 30년물 입찰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전악후강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한 가지 변수는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자의 입국이다. 이번 주 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을 때 한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주목할 부분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여부도 관건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부근에서 철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향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여건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체결은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기대를 희석시키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프)-차트로 보는 1분기 글로벌 금융시장

런던, 3월 31일 (로이터) - 투자자들은 2022년 코로나 19로부터의 회복세가 단단해지고 일상생활도 정상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러시아는 이번 군사활동을 특별군사작전이라 부르고 있음)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지정학 및 경제적으로 세계 질서를 뒤흔들어 놨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10조달러가 증발됐다 9조달러를 회복했고, 채권시장은 요동쳤으며, 원자재 가격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글로벌 금리 인상 속도도 수십년 만의 최고다.

거기에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러시아 국가 신용등급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강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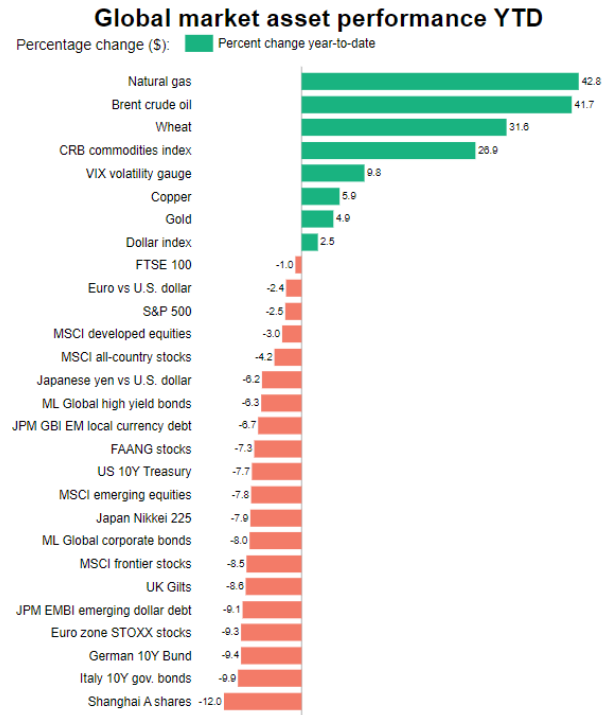
클로스브라더스에셋매니지먼트의 로버트 앨스터 최고투자책임자는 "기억에 남는 가장 놀라운 분기 중 하나"라며 "우리는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격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그는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폐쇄시키지 않고, 세계 최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금리 인상에 진지하다는 점을 갑자기 깨닫게 됐다.

지난 1월 글로벌 채권금리를 이끄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5% 미만에서 1.8%로 뛰어오르면서, MSCI 세계 주가지수는 5% 하락했다.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4%이며, 2년물 수익률은 분기 기준 1981년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올해 연준이 금리를 200bp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망치가 실제와 부합할 경우 1994년 이후 연간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게 된다.

세계 주요 주식시장은 3월을 상승 마감할 전망이나, 분기 기준으로는 모두 판데믹으로 혼란이 촉발된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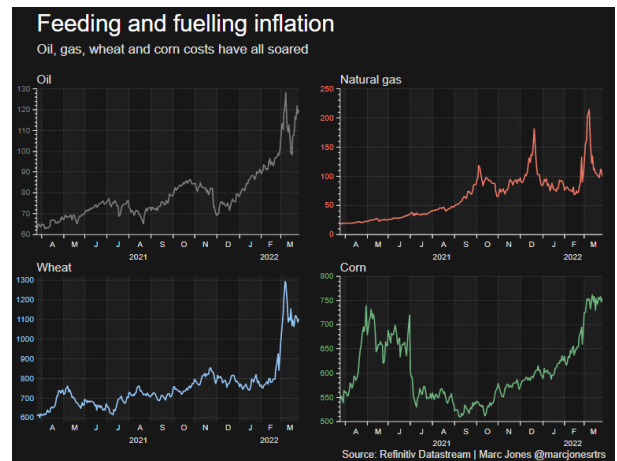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data to 29/03/2022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경우, 석유 및 가스 가격이 40% 급등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니켈과 소맥 가격이 각각 57%, 31% 오른 가운데,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애널리스트들은 원자재 가격이 연간 기준 1915년 이후 최대폭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Marc Jones @marcjonesrtr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기업들은 런던과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고, 루블은 더 이상 자유롭게 거래되지 못하며, 러시아 국채 및 회사채는 주요 투자 지수에서 편출 됐다.

◆ 신흥국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여파는 신흥 시장까지 전 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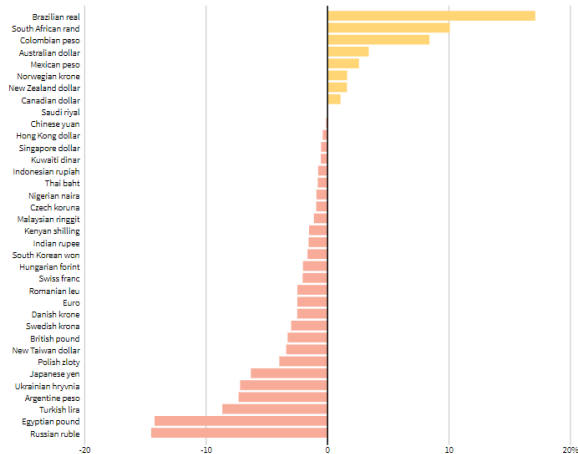
소맥 수입 비중이 높은 이집트의 경우, 자국 통화 가치를 15% 절하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신흥국 채권은 총 투자 수익률이 약 10% 하락하는 등 역대 두 번째로 최악의 분기 성적을 기록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2020년 1 분기에는 13.3%의 하락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원자재가 풍부한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연초 이후 통화 가치가 각각 17%, 10%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호주달러는 선진국 통화 중 가치가 가장 크게 올랐다.

Global foreign exchange rates

Currencies against the US dollar, year-to-d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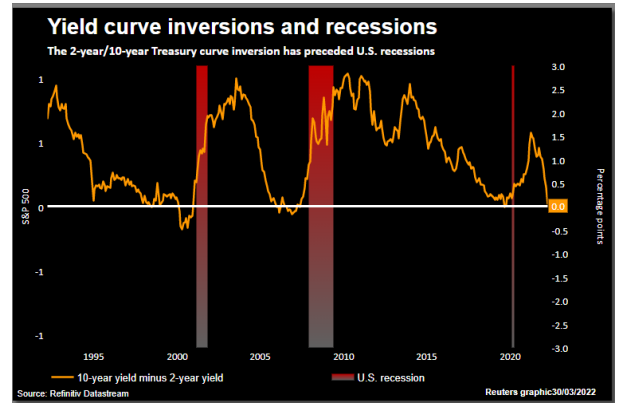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수익률 곡선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중 가장 주목받는 구간인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 곡선은 이번 주 한 때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2년물/10년물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은 이달 달러 대비 9% 절하됐는데, 이는 주요 10개국(G10) 통화 중 2016년 영국 브렉시트로 파운드 가치가 급락한 이후 최고 절하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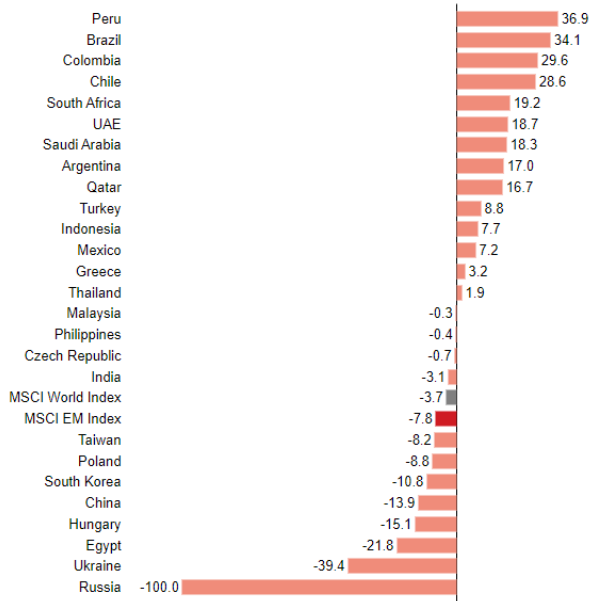
분기 기준 엔 절하율은 6%, 유로 절하율은 2%를 기록하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지수는 3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루블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치가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이후 타이트한 자본 통제와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올해 현재까지 낙폭을 15%로 축소했다.

모간스탠리의 민 다이 아시아 거시 전략 헤드는 "대부분의 경력을 신흥국 시장에 쏟아온 사람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은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했다.

Beware of the Russian bear... market!

MSCI emerging markets country indices in 2022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대외 악재에도 3월 韓 수출입 모두 '역대 최고'..무역적자 등 불안 요소도 드러나

서울, 4월 0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한국의 3월 수출입 실적에 대해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월간 및 조업일 평균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월간 수입액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무역수지는 한 달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3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며, 이로써 올해 들어 3개월간 누적 무역수지는 40억달러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은 634.5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2% 늘어 1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로이터 전망치(+17.5%)는 웃돌았지만 2월(+20.6%)보다는 소폭 둔화됐다.

반도체(131.2억달러), 석유화학(54.2억달러)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중국(+16.6%)·미국(+19.9%)·아세안(+44.4%) 등에 대한 수출도 월 최고 실적을 경신하는 등 주력 품목과 지역에서 한국 수출 호조세는 이어졌다.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 증가로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7.9% 급증한 636.2억달러로 집계됐다.

3월 원유·가스·석탄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7억달러 증가한 161.9억 달러로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1.4억달러 적자였다.

▲ 엇갈리는 시그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3월 한국의 견조한 수출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았다.

15개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그중 8개는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조업일 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한 27.6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수출 규모는 1728억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최대를 달성했다.

하지만, 에너지 수입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적지 않다. 외환 수급 측면의 부담은 해소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은행 외환 딜러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외환 수급에 따른 환율 영향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수입국 위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데 비해 한국 무역 적자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도 내려진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최근 에너지 수입 급증 영향으로 7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인 데다 2월에는 6697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이 최대 변수지만 수입과 관련해 최악의 국면은 지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제기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봐야 하지만 수입 측면에서 최악은 면했다고 본다"면서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봉쇄조치가 부담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엔 데믹 쪽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 국면이 지나면 공급망 측면에서는 오히려 해소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중국도 경기 부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반도체 업황도 수출 쪽에서 보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초점)-자산스왑 가움에 휘둘린 크로스 시장..'부채스왑의 봄' 앞두고 긴장감↑

서울, 3월 31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3월 한 달간 달러 금리 상승과 자산스왑 물량 부진으로 요동쳤던 통화스왑(CRS) 시장이 4월에 다시 부채스왑 물량 처리라는 시험대에 오른다.

최근 대내외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향후 부채스왑 파이프라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CRS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다수다. 원화환산수익률 악화로 외화채권 투자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보험사들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관건이다.

▲ 4월 부채스왑 파이프라인 '총총'

3월에 CRS 금리는 달러 금리 폭등 사정권에서 움직였다.

3월 한 달동안 CRS 금리는 대부분의 테너에서 50bp 이상 급등했다. 이 기간에 이자율스왑(IRS) 금리도 상승했지만 CRS 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스왑베이스스 역전폭도 크게 축소됐다. 2월 말 -86bp 수준이었던 1년 스왑베이스스는 30일 기준 -59bp로 축소됐고 3년과 5년 스왑베이스스도 같은 기간 -71bp, -63bp에서 -48bp, -46.5bp로 좁혀졌다.

CRS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인 데는 수급 불균형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금융공사와 현대중공업의 외화채 관련 부채스왑을 포함해 일부 사모 부채스왑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스왑이 그 어느 때보다 부진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수급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다. 4월에 대기하고 있는 부채스왑 파이프라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한시라도 빨리 외화채 발행을 마무리하려는 곳들이 늘고 있다.

IB 업계에 따르면 4월 10일 이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필두로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외화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월말에는 KB 카드와 한국동서발전이 발행 원도우를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의 경우 지난해처럼 외화채 발행 주관사가 부채스왑까지 일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에 대기하고 있는 사모 부채스왑 역시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CRS 금리의 상승 압력을 키울 전망이다.

A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오늘 크로스 쪽으로 오피가 많은데 일본계 은행들이 결산으로 앞두고 내놓는 물량으로 보인다"며 "4월이 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채스왑을 프라이싱하면서 금리가 다시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채스왑의 경우 발행 2~3주 전에 상담을 하는데 현재 금리가 상담했던 수준보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이틀간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원래 상담했던 곳들은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변수는 자산스왑..외화채 투자 원화환산수익률 관건

CRS 금리의 방향과 관련해 변수는 있다.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공식화하면서 최근까지 엄청나게 높였던 금리 수익률곡선을 인위적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 통화정책과 관련한 시나리오라 아직 포지션으로 반영하기엔 불확실성이 큰 부분이다.

당장 CRS 수급에 영향을 미칠 재료는 자산스왑 플로우다.

최근 10년 국고채금리가 3%를 넘는 등 원화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외화채권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헤지를 감안한 외화채 투자의 원화환산수익률과 원화채 투자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한 자산스왑이 극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B 보험사 운용부장은 "외화채 30년물의 환헤지후 원화환산수익률이 3.2% 정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원화채권에 비해 비교 우위가 30bp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부 원화 회사채의 경우 3.5%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산배분 목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외화채 투자를 늘릴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향후 미국 금리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이는 만큼 외화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원화채 투자 대비 최소 50bp 이상의 추가 기대수익률이 보장돼야 외화채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참가자들은 CRS 시장 수급상 페이가 우세해 보인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이 워낙 많은 데다 변동성마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 베팅보다는 빠른 플로우 처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 외국계은행 트레이딩헤드는 "오늘 4년 쪽으로 자산스왑 물량이 있는 것 같지만 나머지 테너는 여전히 비드가 많다"며 "다음주부터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3년 크로스 금리의 경우 포워드 레벨로 봐도 굉장히 높지만 비드가 들어온다"며 "스왑베이스스가 좁으니까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고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산스왑이 4,5년 테너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부채스왑 물량과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클지 가능성은 잘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받는 즉시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하는 게 맞아 보인다"고 말했다.

D 국내은행 스왑딜러는 "원화채 금리와 달러 금리가 안정화되면 자산스왑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은 그동안 중공업체 물량과 자산스왑에 너무 치중됐던 시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확실한 건 고객 물량을 받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달러/원 월간 전망)-단기 상단 확인에도 수급 부담 확대

서울, 4월 01일 (로이터) 박예나·이지훈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사태 전개 양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및 외국인 주식 배당금 역송금 등 역내 수급 변수를 주목하면서 4월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192.0-1231.5 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약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더욱 공격적인 긴축을 시사한 탓에 3월 달러/원은 한때 1240 원까지 치솟는 등 거래 범위가 1200 원대로 '레벨 업'됐다.

다만 현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 아래 달러/원에 대한 단기 고정 인식은 형성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하지만, 5월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 등 미국 통화정책 긴축 경계감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에 지속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은 쉽게 떨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4월은 계절적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역송금 수요 경계감이 높아지는 달로, 특히 최근 뻣뻣해진 수급 여건과 맞물려 배당 수급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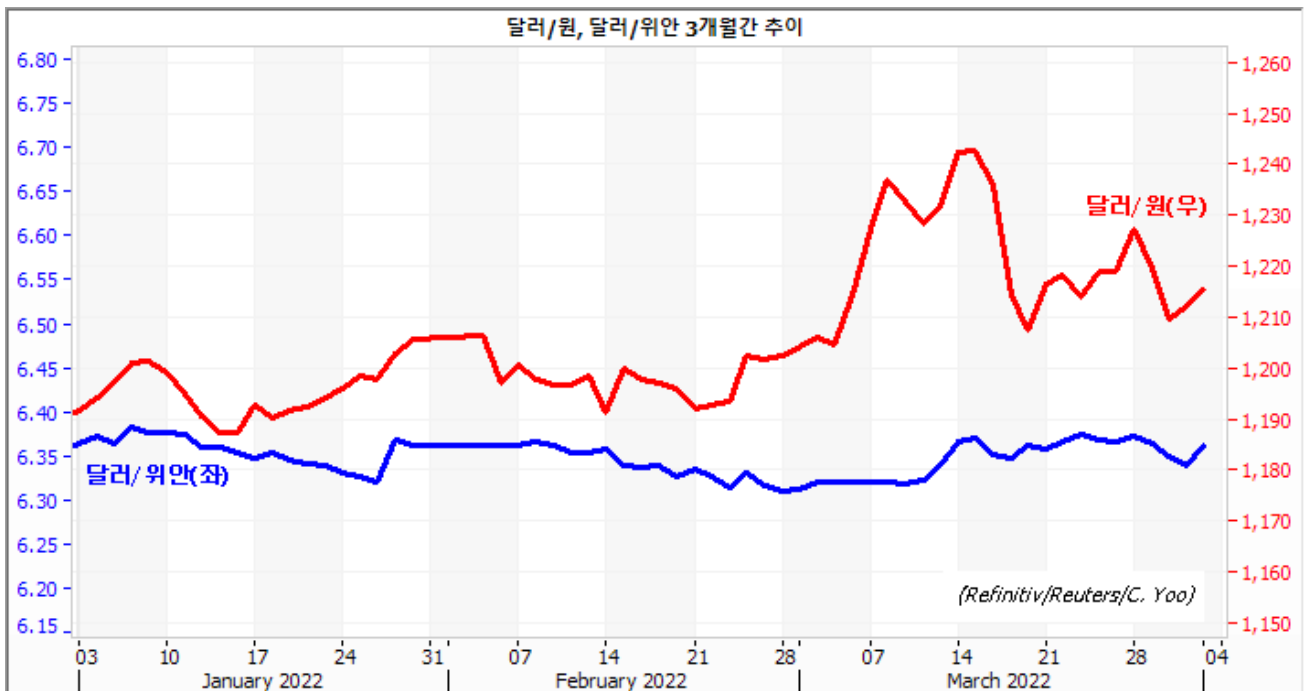
로이터 추산 결과 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액은 약 6.9조원으로 작년 추산 규모(11.6조원)에 비해서는 40% 감소했지만, 수요 쪽으로 일시적 수급 요인이 더해지는 점은 부담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유의미한 귀환이
부재한 상황에서 외국인 배당 관련 역송금이 활발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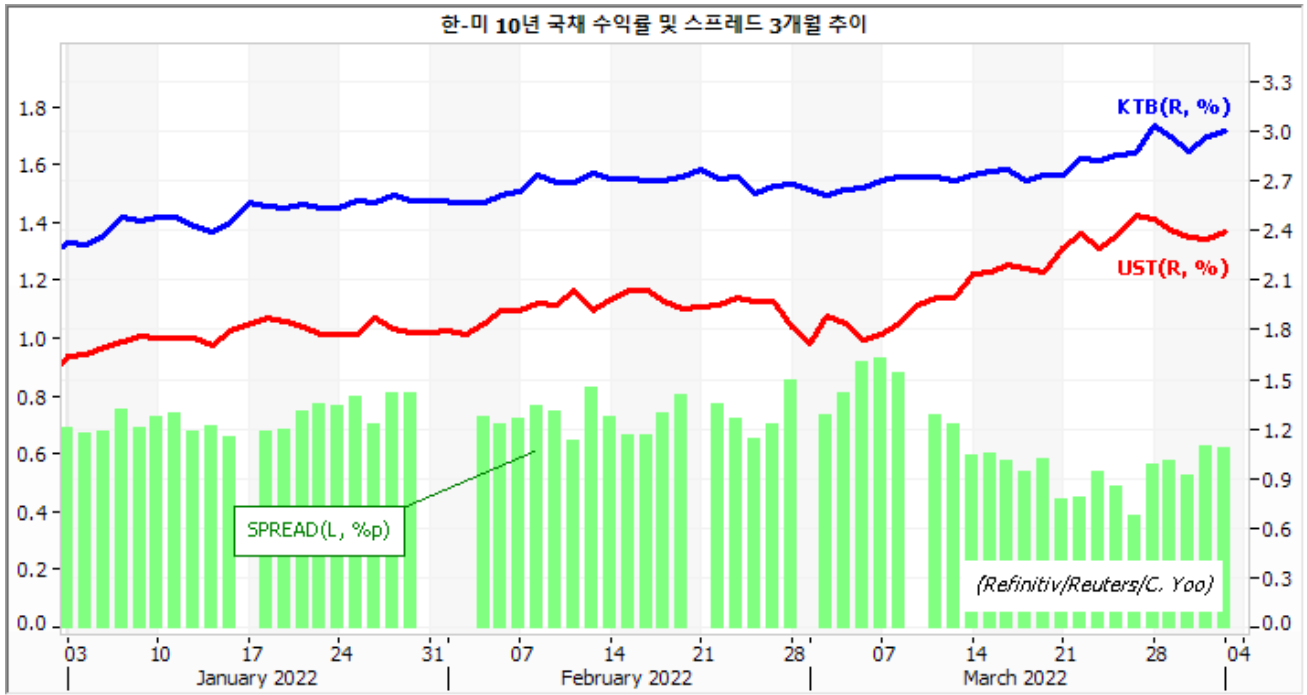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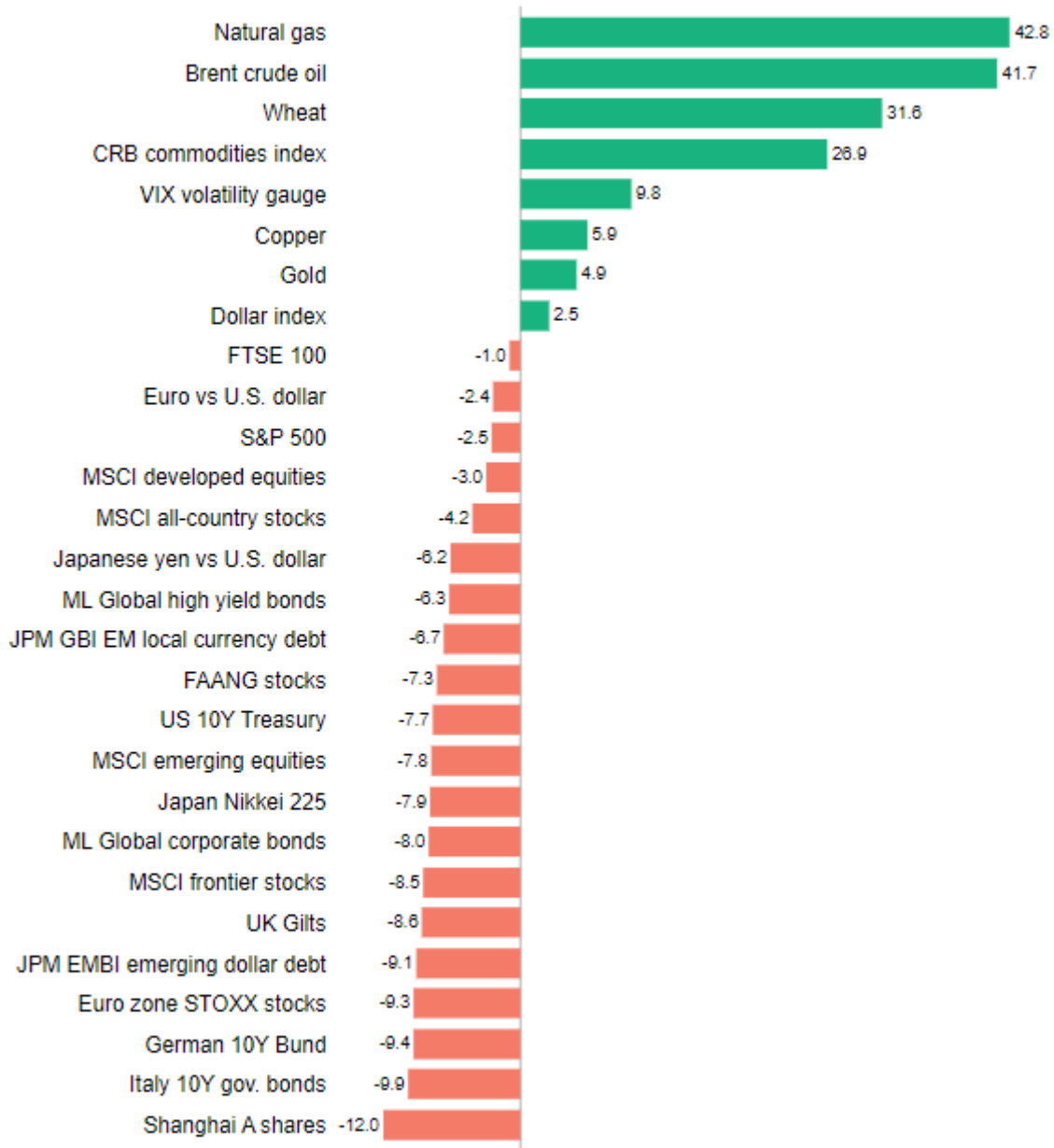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Global market asset performance YTD

Percentage change (\$): ■ Percent change year-to-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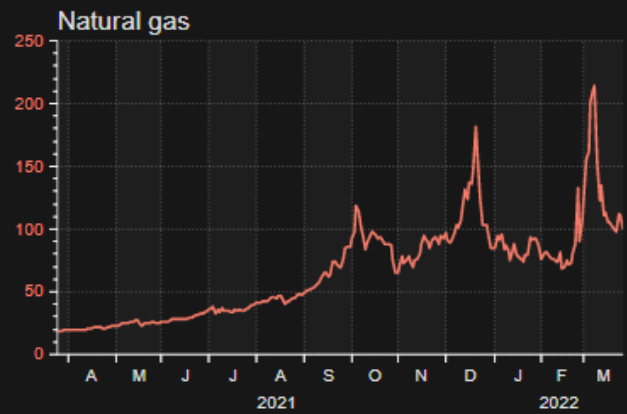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data to 29/03/2022

Reuters | Marc Jones @marcjonesrtr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Feeding and fuelling inflation

Oil, gas, wheat and corn costs have all so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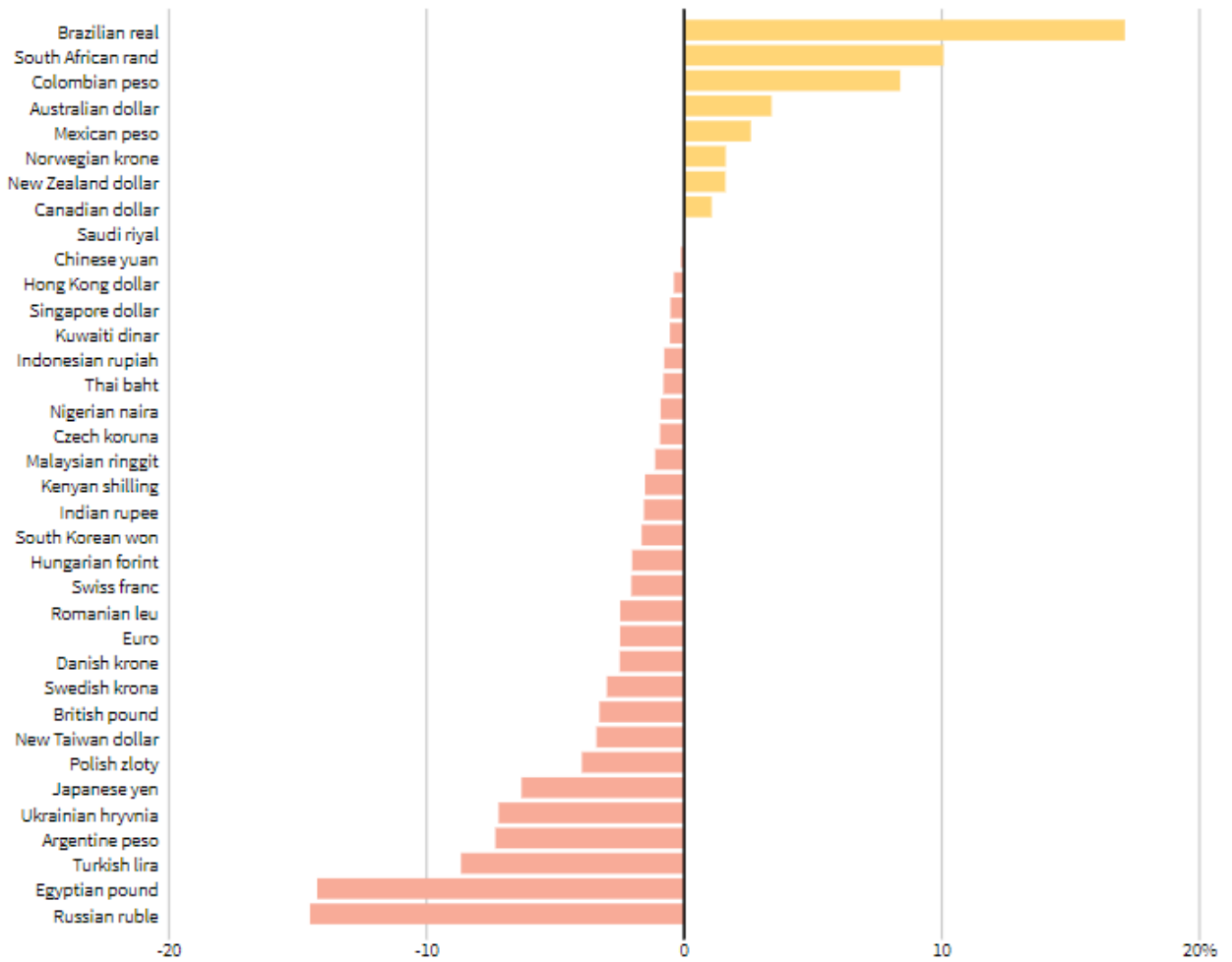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Marc Jones @marcjonesrtr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Global foreign exchange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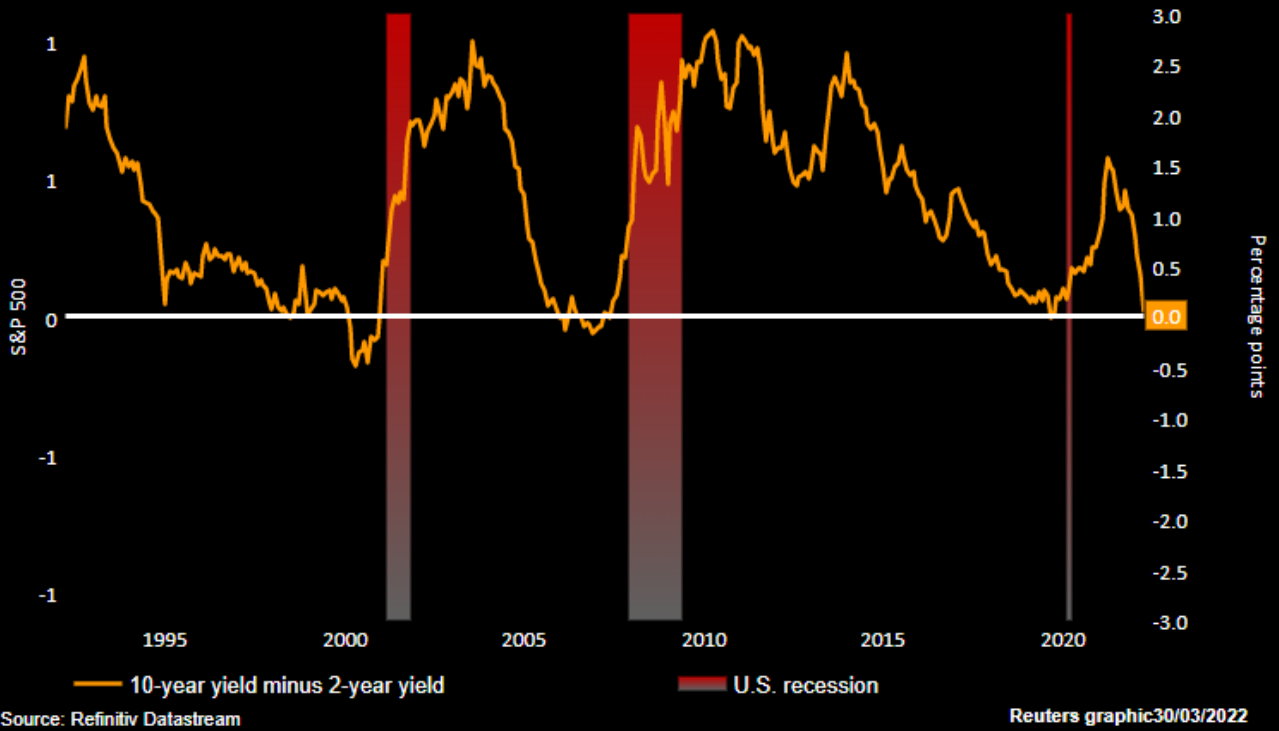
Currencies against the US dollar, year-to-date chan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Yield curve inversions and recessions

The 2-year/10-year Treasury curve inversion has preceded U.S. recession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Beware of the Russian bear... market!

MSCI emerging markets country indices in 2022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